

## 여몽전쟁기 경상도에서의 산성·해도 입보

- 경주 황룡사의 소실과 울산 연자도 입보사례 -

윤용혁\*

1. 머리말
2. 몽고군의 경상도 침입
3. 경상도민의 산성 및 해도 입보
4. 황룡사와 흥륜사, 분황사의 소실
5. 울산 연자도 입보 사례
6. 맺는말

### 1. 머리말

왜구 혹은 임진왜란과 같은 일본으로부터의 침입을 제외하면 전근대의 시대에 경상도 지역이 외적의 직접적 침입으로 피해를 크게 입은 경우는 거의 없다. 대륙으로부터의 침략은 주로 서북 지역이 주요 침입로였고 평양, 개성, 서울 등의 도성이 주요 타겟이었기 때문에 경상도에 까지 적이 이르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 결말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이에 대하여 예외적 경우가 있다. 13세기에 진행된 몽골의 침입이었다. 몽골 침입에 대한 주요 대응으로 고려정부가 서울을 강화도로 옮긴 상태에서 몽골은 전국을 휩쓸었고, 그 과정에서 경상도 지역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대구 부인사에서 초조대장경판 소실, 경주 황룡사의 소실 등이 당시 경상도 지역에서의 피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경상도 지역에서 이루어진 대몽 전투 가운데서는 1254년 상주산성 승첩이 대표적이다.<sup>1)</sup> 그러나 이를 제외하면 당시 경상도 지역이 몽고 전란 속에서 가졌던 특성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어진 바가 거의 없다. 이것은 관련 자료의 빈약함에 기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몽고군 침입이 경상도 방면으로의 구락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는 점에서 경상도 지역에서의 전쟁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경상도는 고려 성종 14년(995) 10도제의 시행에 의하여 ‘영남도’ ‘영동도’ ‘산남도’라는 이름이 사용된 이후, 이를 총괄하는 개념의 ‘경상진주도’의 이름이 지어진 것은 예종 원년(1106)의 일이었다. 이후 명종 16년(1186) 경상주도, 신종 7년(1204) 상진안동도에 이어, 충숙왕 원년(1314) ‘경상도’라는 이름에 이른다.<sup>2)</sup>

이상과 같은 연구 배경을 전제로, 본고는 1231년 이후 30년간 진행된 전쟁과 관련, 경상도 지역에서의 상황과 특성을 정리하는 한편, 대표적인 피해 사례인 경주, 그리고 대표적 입보 사례로 생각되는 울산 연자도의 사례에 대하여 함께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에 의하여 종래 주목되지 않았던 여몽전쟁의 또 다른 양상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축적

1) 윤용혁, 「몽고의 경상도 침입과 1254년 상주산성의 승첩」, 『진단학보』 68, 1989; 윤용혁, 「1254년 상주산성 승첩과 백화산성」, 『여몽전쟁과 강화도성 연구』 혜안, 2011 참고.

2) 『신증동국여지승람』 21에 의함. 충청도는 예종 원년(1106) ‘양광충청주도’, 충숙왕 원년(1314) 양광도, 공민왕 5년(1356)에 ‘충청도’라 하였다. 이에 비해 ‘전라도’라는 이름은 현종 9년(1018)부터 시작된 것으로 되어있다.

하고, 동시에 경상도 지역에서의 13세기 전란의 역사를 보완 정리하는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 2. 몽고군의 경상도 침입

몽고군의 경상도 침입은 고려정부의 강화천도 직후인 1232년(고종 19)부터 시작되었다. 1232년에 대구 팔공산 기슭의 부인사에 소장되어 있던 고려대장경이 몽고군에 의하여 소실되었던 것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1235년(고종 22)의 3차 침입 때 몽고군은 개경을 거쳐 경상도로 침입하였다. 이때 어느 지역까지 남하하였는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9월에 해평(선산군), 안동에 침입하고 다시 경주를 향했다는 것에 의하여, 경상도 북부 일대에 두루 침략이 미쳤다는 것은 분명하다.

1238년(고종 25) 3-3차 침입의 몽고군은 또 경상도로 침입하였는데 이때 경주의 황룡사가 불태워졌다. 이듬해(1239) 초 2월에 지은 이규보의 시에는 “기러기는 벌써 북으로 돌아갔는데, 오랑캐는 아직도 남쪽에 남았구나”<sup>3)</sup>라고 하여, 몽고군이 경상도에 대한 구락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1247년(고종 34) 慶尙晉安東道 안찰부사 全光宰가 경주에서 瑞龍禪老 連公 등 선승들을 불러 모아 법회를 주관하였다.<sup>4)</sup> 경상도에 침입한 몽고군의 병란을 진정시키려는 노력의 법회였을 것이다.<sup>5)</sup>

3) 『동국이상국집』, 「二月虜兵猶在南」

4) “越丁未歲 出鎮金城 衰集禪侶 請瑞龍禪老 連公 主法點示 以禳蒙寇”(『고려대장경』 제45권(보유), K.1500)

5) 서운길은 이 자료를 근거로 전광재가 “금성에 출진하여 몽고 대군을 맞아 싸우면서 전시의 진중에서” 법회를 개설하여 적을 물리친 것이라 하였다.(서운길, 『고려의 호국법회와 道場』 『불교학보』 14, 1977, p.120) 이 자료만으로 몽고군이 당시 경

이후 몽고군이 경상도에 진입하는 것은 고종 41년(1254)의 제6(1)차 침략과 이듬해 6(2)차 침략 때에도 이어졌다. 그중 1254년의 경우는 차라대의 주력이 경상도의 남해안까지 압박해 들어옴으로써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는데 상주산성에서 입보민들이 몽고군을 패퇴시킨 사건도 이때의 일이었다. 고종 41년(1254) 7월 압록강을 건넌 차라대의 몽고군은 9월에 충주산성을 거쳐 경상도로 진입하였는데, 상주산성(백화산성)에서 黃嶺寺의 스님 洪之의 반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사실이 10월 19일자 기록에 등장한다.<sup>6)</sup> 이 전투는 경상도지역에서 벌어진 최대의 공방전으로서 기록될 만한 것이었다. 상주산성에서 퇴각한 몽고군은 각처에서 보복적인 구락을 일삼았고, 이후 丹溪(경남·산청군)에까지 내려간 사실이 확인된다.<sup>7)</sup>

몽고군은 경남지역으로 남하하는 과정에서 대구를 경유하였다. 이 사실은 이듬해 몽고군의 철수과정에서 포로로 잡혀가던 大丘民이 도망, 강도정부에 당시 몽고군의 상황을 제보한 사건이나, 대구 인근의 주민들이 팔공산의 公山城에 입보하였던 사실에서<sup>8)</sup> 알 수 있다. 또한 원종 원년(1260) 2월, 원으로부터 환국하는 원종을 따라 고려에 입국한 康和尚(康守衡)에 대하여 그가 ‘진주사람’으로 일찍이 포로되어 몽고에 들어갔던 자라고 소개하고 있거니와 몽고군이 진주에 들어왔다면 그것은 바로 고종 41년(1254) 차라대군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sup>9)</sup> 이렇게 본다면 당시 몽고군의 진로는 상주로부터 대구, 산청을 경유, 최씨정권의 경제적 기반지인 경상도 남해안의 진주 지경까지 남하하는 것이었다. 이들 몽고군은 대략 동년 말에 경상도에서 철수한 것으로 보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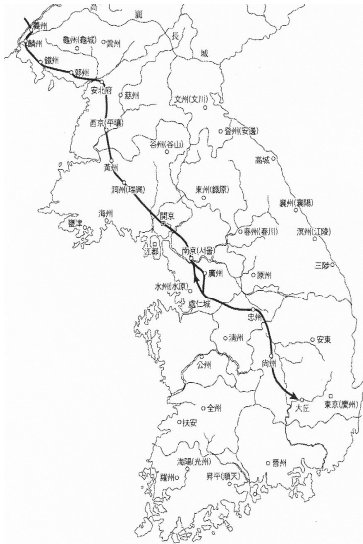
주에 침입하였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경주를 향하는 몽고군의 남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6) 『고려사』 24, 고종 41년 10월 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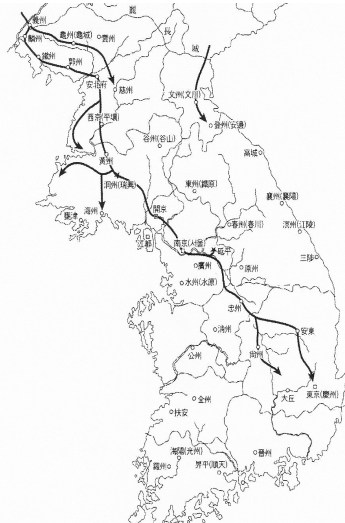
7) 『고려사』 24, 고종 41년 12월

8) 『고려사절요』 17, 고종 42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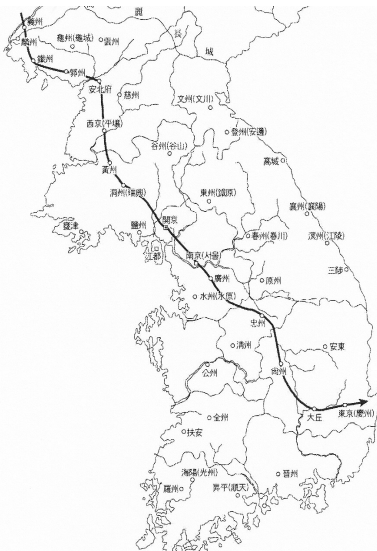
9) 『고려사절요』 18, 원종 원년 3월 갑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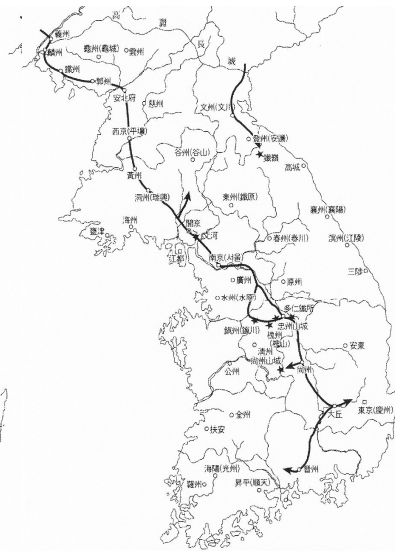
몽골의 2차 침략(123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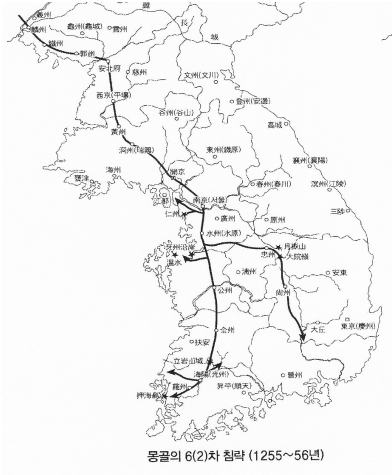
몽골의 3(1)차 침략(1235년)



몽골의 3(3)차 침략(1238~39년)



몽골의 6(1)차 침략(1254~55년)



차라대군의 재침은 고종 42년 (1255) 8월에 재개되어 해를 넘겨 이듬해 1256년으로 연결된다. 그리하여 1256년(고종 43년) 상반기의 기록에는 당시 몽병이 전라도와 경상도 양 지역에 동시에 진입하였음을 보여준다. 차라대의 주력은 전라도 방면에 깊이 투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무렵 경상도의 몽고군은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였으리라 짐을 추측할 수 있다. 경상도에

침입한 몽고군은 같은 해 4월, 현풍현(달성군) 인근에 출현하여 정박중인 玄風縣人 40여 척을 추격, 남녀 재물을 빼앗고 중앙에서 파견된 勸農使 金宗敍를 사살하였다.<sup>10)</sup> 이렇게 볼 때 1256년도의 몽고군은 경상도 북부지역을 종단하여, 아마 경남 지경까지 이르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상도민은 전쟁과 피란의 갈래에서 안팎으로 심각한 고통을 경험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침략군과 직접 맞서 무력항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임진왜란이나 왜구의 경우를 제외하면, 경상도는 외침에 의하여 직접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이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상도 지역의 몽고군에 의한 피해는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1231년 이후 1259년까지 11회에 걸친 몽고군의 침입과정에서 몽고군이 경상도에 직접 침입한 것은 1232년, 1235년, 1238년, 1255년, 1256년의 5회에 이르<sup>11)</sup>, 1231년, 1247년, 1253년, 1258년의 경우도 중도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였지만 경상도 방향을 취한 경우였다.

10) 『고려사』 24, 고종 43년 4월 무진

11) 경상도 지역 침입 관련 지도는 윤용혁, 『삼별초, 몽골·무인정권, 그리고 바다로의 역사』, 혜안, 2014, pp.43-45에서 인용함.

전라도 지역에 대한 침입은 1236년부터 시작되어, 1247년, 1253년, 1256년 등 4회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력군의 경로 등으로 보더라도 몽고군의 남하 방향이 경상도가 주축이었음은 명확한 사실이었다.

몽고군 전략의 기본은 고려 전토를 구락함으로써 고려 정부의 항복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전쟁 초기인 1232년 서울을 강화도로 옮기자, 몽고군은 이러한 전략을 분명히 하게 되었다. 방호별감 등이 정부에서 파견되어 몽고군 침입에 대처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주로 지역민들을 산성으로 입보시키는 작업이었다. 그런데 몽고군이 남하하는 경우 그 방향은 전라도보다는 대체로 경상도 방향으로의 진출이 중심을 이루었다. 몽고군의 침입에 군사적으로 직접 대응하는 조치는 경상도 지역에서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한 지역의 피해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것이었다.

몽고군이 남으로 군세를 투입하여 고려의 전역을 구락할 때, 전라도 지역보다 경상도 지역으로의 방향을 주로 채택하였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첫째는 경상도에 소재한 동경(경주)의 존재와 비중 때문인 것 같다. 경주는 신라의 천년 수도로서 여전히 인구가 밀집된, 개경에 버금하는 고려의 거점도시였기 때문이다. 경주에 대한 서거정(1420-1488)의 기문에서 “번화하고 곱고 아름다움이 실로 동남 여러 고을에서 으뜸”<sup>12)</sup>이라 한 것은 동경, 경주의 전통 있는 도시적 면모를 묘사한 것이었다.

고려시대의 개경은 교통로에 있어서 서북축과 동남축의 중앙부에 위치한다. 서북축은 대륙과의 연결로이고, 동남축은 구신라계 귀족의 본거지였다. 이 서북-동남축을 따라 서경·개경·남경·동경 등 4경과 황주·광주·충주·상주의 4목, 안북도호부와 안동도호부 등 고려의 주요 도시들이 이어지고 있다.<sup>13)</sup> 이러한 점에서 몽고군의 침략의 기본 방향이

12) 『신증동국여지승람』 21, 경주부 궁실(신증)

13) 최영준, 『영남대로 -한국 고도로의 역사지리적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pp.103-105 참조.

고려의 지리적 중심축과 부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는 몽골의 고려 침입이 장기적으로는 일본 침입의 전단계였다는 점이다. 일본 침입이 전개되면 동남축의 군사적 의미가 부각된다. 그리고 그 발진 거점은 경상도 남해안이 된다. 그 가운데 김해의 경우는 고대 이래 일본과의 교역과 교류가 이루어진 오랜 통로이기도 하였다.

다만 뒤에 몽고군에 의하여 일본 침략의 거점으로 채택된 곳은 김해가 아니라 마산이었다. 이것은 아마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김해의 항구로서의 입지적 특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몽고군의 일본 침입은 9백 척이라는 대규모 선단이 출정하는 항구로서 미증유의 대규모 군사 기지였다. 군선 또한 이제까지 보기 어려운 대형 군선이었다. 육지 사령부로부터의 거리, 충분한 수심의 확보 등 특별한 조건이 요구되는 것이었다. 김해가 자리한 낙동강 하구는 강물에 의하여 퇴적된 지형으로 이같은 대규모 군선의 정박과 자유로운 출입에는 부적합한 점이 있었던 것이다.<sup>14)</sup>

### 3. 경상도민의 산성 및 해도 입보

몽고군의 침입에 대한 고려 정부의 대응 조치는 산성과 섬으로 군현 민들을 입보시키는 것이었다. 이같은 조치는 경상도의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다만 경상도에서는 산성으로의 입보가 적극적으로

14) 고대 김해 지역의 항구는 삼한시대 봉황동, 가야시대에는 장유면 관동리 혹은 부산광역시 미음동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외항의 위치 변화가 심한 것이 특징인데 이것은 낙동강 하구의 퇴적으로 인한 것이다.(소배경, 「김해 관동리유적과 가야의 항구」, 『가야의 포구와 해상활동』, 인제대 가야문화연구소, 2011; 김창석, 「3-4세기 가야연맹체의 교역 전략과 정치체제」, 『한국 고대 대외교역의 형성과 전개』,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3, pp.81-89) 고려시대에는 항구 조건이 다시 변경될 수 밖에 없었는데, 낙동강 하구의 토사 퇴적은 항구의 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고, 낮은 河床으로 인하여 대규모 대형 선박의 자유로운 출입도 제한을 받았던 것이다.

모색되었고, 지리적 조건 때문에 섬으로의 입보는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경상도 지역에서의 입보 문제는 자료의 한계 때문에 잘 다루어지지 않았다.<sup>15)</sup>

경상도에서의 산성 입보에 대한 기록은 차라대 침입기인 전쟁의 후기에 주로 나타난다. 1254년(고종 41) 2월의 기록에 “충청, 경상, 전라 3도 및 東州道와 西海道에 사신을 보내 산성과 해도에 피난한 곳을 둘러보고 土田을 헤아려 주도록 하였다”<sup>16)</sup>고 하였다. 이는 전년인 고종 40년에 산성 해도에의 입보가 경상도에서도 광범하게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실제 지역민의 입보는 전쟁 초기부터 있었을 것이다. 가령 1232년 팔공산 부인사 대장경의 소실도 당시 대구 지역민들의 팔공산으로의 입보가 이루어진 가운데 야기된 것으로 생각된다. 몽고군의 침입시 그 초기부터 내륙 각지에서는 산성으로의 입보가 광범히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된다.

1253년에 이어 고종 43년(1256) 몽고군의 침입에서도 경상도의 여러 지역은 수령이나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에 의하여 산성 혹은 섬으로의 입보책이 광범히 전개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1256년도 정부의 경상도민에 대한 적극적인 입보 조치는 아마 고종 41년도의 전쟁에서 다수의 경상도민이 몽고군에 의해 포로 되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가운데 고종 41년(1254)도 차라대의 침략은 고려 각처에 흑심한 피해를 입혔다. 고종 41년 10월, 宰臣들이 大廟에 祈告한 글에 의하면 “백성은 勢가 궁하여 죽은 자는 해골을 묻지 못하고 산 자는 노예가 되어 父子가 서로 의지하지 못하고 妻子가 서로 보존하지 못한다”<sup>17)</sup> 하였고, 또 “이해에 몽병에게 사로잡힌 남녀가 무려 20만 6천

15) 가령 김호준의 연구에서 대몽항쟁기 입보용 성곽에 대하여 종합 정리하면서 경상도의 경우 상주산성만을 언급한 것이 그 예이다. 김호준, 『고려 대몽항쟁기의 축성과 입보』, 충북대 박사학위 논문, 2012, pp.142~196 참조.

16) 『고려사』 78, 식화 1, 經理

17) 『고려사』 24, 고종세가

8백여 인이요, 살륙된 자는 무려 헤아릴 수가 없었고, 지나가는 州郡마다 모두 잿더미가 되었다”<sup>18)</sup>는 것이다. 한 해에 포로만 20여 만이라 한 것은 이 전쟁이 얼마나 고려에 많은 피해를 입혔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면, 1254년은 대몽전쟁 사상 고려의 피해가 가장 컸던 시기였던 것 같고, 이 기간 몽고군의 주요 작전 지역이 경상도 지방이었던 만큼, 무수한 인명이 살육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현상은 특별히 경상도 지역에서의 내용을 크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당시 몽고군에게 경상도민의 다수가 포로로 잡혀갔던 것은 앞에 언급한 대구민이나 진주인 강화상(강수형)의 예에서도 입증되고 있는 바이다.

경상도 지역의 대표적 거점은 상주, 대구, 경주, 진주 등이다. 상주에서는 상주산성(백화산성)이 대표적 입보처였고, 대구에서는 팔공산의 산성에 입보하는 이들이 많았다. 물론 여타 지역 혹은 여타 산성에도 몽고군의 침입 때마다 입보 피란이 되풀이되었을 것이다. 진주는 남해도예의 입보 가능성이 있고, 경주의 경우는 서쪽에 위치한 富山城이 주요 입보처였던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

경상도 지역에서의 대표적인 전투 사례는 1254년 상주산성 전투이고, 이 전투는 적의 주력을 크게 무너뜨린 승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첩의 전공에 대한 포상 작업은 취해진 것 같지 않다. 1232년 처인성 승첩 때 처인부곡이 처인현으로 승격되고, 승 김윤후가 낭장에 보임되었으며, 1253년 충주산성 승첩에서는 충주를 국원경으로 승격시키고 김윤후를 감문위 섭상장군에 승진시켰다. 그 밖에 소소한 전투의 승전에 대해서도 강도정부의 포상이 시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54년 상주산성 전투는 승첩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18) 『고려사』 24, 고종세가

상주산성에는 인근의 여러 지역 사람들이 한꺼번에 입보하여 있었고, 정부에서 파견하는 방호별감의 지휘에 의한 입보가 아니었다. 지역 민들에 의한 자율적 입보, 그리고 중앙 파견의 관원이 없었다는 점에서 결국 상주산성 전투는 민 중심의 항전이 되었던 것이다.<sup>19)</sup> 포상의 대상이 되는 특정의 지역 혹은 지휘관의 존재가 애매한 점이 있었고, 전투에 대한 상세한 정보조차 정부는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적절한 포상이라는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은 데에는 분명 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sup>20)</sup>

다음은 당시 차라대군을 피하여 대구 팔공산 지역으로 피란하였던 사람들의 경우이다.

여러 도 군현의 산성과 섬에 입보한 자들을 모두 출륙케 할 때 공산성에 입보한 군현으로 양식이 떨어지고 길이 먼 자는 굶어 죽는 자가 심히 많았으며 노약자가 (거꾸러져) 구렁을 매우는 지역이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나무에 매어두고 가버리는 자도 있었다. (『고려사』 24, 고종세가 42년 3월)

이에 의하여 대구 인근에서는 팔공산이 가장 중요한 입보처였음을 알 수 있다. 주요 거점 지역별로 입보처가 설정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경주는 고려시대의 동경으로서 경상도 최대의 거점 도시였다. 몽고군의 중요한 공략 대상이 되고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바다와는 가깝지만 입보할 만한 도서가 마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 산성으로의 집단 입보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명활산성, 남산성 등 주변의 산성도 있지만, 가장 유력한 입보처는 서쪽에 소재한 부산성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sup>21)</sup>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에 소재한 富山城은 신라 통일

19) 윤용혁, 「1254년 상주산성 승첩과 백화산성」 『여몽전쟁과 강화도성 연구』 해안, 2011.

20) 이러한 점에서 생각하면 2013년 지역민들이 중심이 되어 '상주 항몽대첩'의 기념탑을 건립한 것은, 760년 만의 작은 보상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1) “富山城 在府西三十二里 石築 周三千六百尺 高七尺 今半頽 內有四川一池九泉

전쟁기인 663년에 처음 축조되었고, 둘레가 7.5km에 이르는 대규모 입보성이다. 水源도 매우 풍부하고, 이미 신라시대에도 군수용의 저장 시설과 운영 조직이 갖추어져 있었다.<sup>22)</sup> 고려 통일에 의하여 도성 기능이 상실된 이후 고려시대에 있어서 부산성의 기능은 크지 않았을 것이지만, 몽고군의 침입으로 경주로 위협받게 되면서 대표적 입보성으로서의 기능이 부활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려의 해도 입보는 몽고 침입 초기부터 몽고 침입에 대비한 조치로서 널리 이용되었다. 1232년 강화도에의 천도 자체가 하나의 해도 입보 전략이었다.<sup>23)</sup> 경상도 지역의 경우 해도 입보는 전라 혹은 충청의 서해안 지역보다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도서가 남해안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서 피해가 많았던 경상도 북부, 내륙에서의 입보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종 43년(1256) 현풍현민들은 몽고군의 침략에 대하여 낙동강의 수로를 이용, 선박으로 피란하였다. 이것은 당시 경상도 여러 지역에서 행하여진 피란의 한 형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같은 피란은 수령이나 중앙에서 파견되어온 관리에 의해 지휘된, 집단적인 것이었다. 권농사는 바로 전년인 1256년(고종 42)에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인데<sup>24)</sup> 그것은 농업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각도 군현민들의 입보를 지휘하기 위한 것이었다. 현풍현인들은 낙동강 중류에서 40척 선단을 구성하여 인근의 군현에 정박 도중 몽고군의 기습을 받았다. 따라서 이들의 피습현장은 현풍에서 얼마간 떨어진 인근 군현이었다. 건너편 對岸의 고령군 지역이거나 보다 남쪽에 있는 창녕·합천(경남) 지역이었을 것이다.

有軍倉”(『신증동국여지승람』 21, 경주부 성곽)

22) 『삼국유사』 2, 기이 2, 「효소왕대 죽지랑」

23) 윤용희, 「고려의 해도입보책과 몽고의 전략 변화」 『역사교육』 32, 1982; 강재광, 「대몽항쟁기 최씨정권의 해도입보책과 전략해도」 『군사』 66, 2008; 강재광, 「대몽항쟁기 서·남해안 주현민의 해도입보항전과 해상교통로」 『지역과 역사』 30, 2012

24) 『고려사』 24, 고종세가 42년 5월 갑인

몽고군은 진주 일대까지 침입하였는데 진주 지역에서는 남해도에 해도 입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삼별초 봉기 이후 유존 혁이 남해도에 주둔하였던 것에 의하여 남해도가 이미 주변 지역민의 입보가 있었던 데서 뒷받침되었다는 것이다.<sup>25)</sup>

대장군 송길유는 1256년(고종 43) 8월 청주 지역에서 해도입보책을 강력 추진하여 악명이 높았다. 송길유가 ‘경상도수로방호별감’이 되어 경상도 지역에서 입보책을 추진한 것은 1256년 청주 이전의 일로 생각 되는데, 경상도 지역에 몽골의 위협이 특히 심각하였던 것은 1254년(고종 41) 때였다. 이때 몽골의 차라대군은 연말에 이르기까지 상주, 대구, 진주 등 경상도 지역을 광범하게 휩쓸고 갔다. 따라서 송길유가 ‘경상도수로방호별감’으로 파견된 것도 이때의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야별초 지유 출신인 송길유는 이때 “야별초를 이끌고 각 주현을 순회하면서” 입보를 추진하였다. 비협조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때려죽이거나 물속에 집어넣어 혼절시키는 등의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sup>26)</sup> 제한적이기는 했지만 해도에의 입보가 그만큼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실제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임연 집권기인 원종 연간에도 산성 및 해도에의 입보가 강력히 요구되었다.

제도수로방호사와 산성별감을 나누어보내 사람들을 모아 입보하여 왕명에 맞서도록 하였다. (중략) 임연이 보낸 야별초가 경상도에 이르러 백성들을 다그쳐 여러 섬에 입보하도록 하니 안찰사 최간이 동경부유수 주열 및 판관 엄수안과 함께 모의하여 야별초를 잡아 금주에 가두고 왕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고려사』 130, 임연전)

임연이 몽고의 재침에 대비하여 산성 및 해도에의 입보를 구체화한

25) 윤경진, 「고려 대몽항쟁기 남도지역의 해도입보와 계수관」, 『군사』 89, 2013, pp.66-67

26) 『고려사』 122, 송길유전

것은 원종 10년(1269)의 일이다. 6월에 비등하는 반대론을 무릅쓰고 원종을 폐위시키고 대신 동생 안경공 창을 신앙으로 옹립하였다가 8월에 몽고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고 그해 11월 몽고로부터 입조의 압력에 부닥치자 다시 원종을 복위시키게 된다.<sup>27)</sup>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임연의 입보 조치 추진은 원종 10년(1269) 8월부터 10월에 이르는 시기의 일에 해당한다. 당시 경주를 중심으로 야기되었던 입보책을 둘러싼 갈등은 몽고 침입기 실제 입보책이 경주에서도 광범하게 진행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뒤에 논의하는 울산 연자도의 유적은 이같은 경상도의 입보 추진 상황과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 4. 황룡사와 흥륜사, 분황사의 소실

몽고군의 경상도 침입은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동경(경주)의 존재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주는 이 때문에 몽골 침입에 의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하나가 되었다.

몽고 전란으로 인한 경주 지역의 심각한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바로 황룡사의 소실이다. 고종 25년(1238)의 기록에 “몽고군이 동경에 이르러 황룡사 탑을 불태웠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sup>28)</sup> 신라 진흥왕대에 이루어진 유명한 황룡사탑이 재로 변한 것이 바로 1238년의 사건이었던 것이다. 『삼국유사』에서는 이에 대해 “몽골 병화로 탑과 장륙존상, 殿宇가 모두 불탔다”<sup>29)</sup>이고 하여 황룡사 탑의 소실은 탑 뿐 아니라 황룡사 전체가 소실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아마도 1238년은 황룡사

27) 윤용혁, 「원종조의 대몽관계」,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2000, pp.120-122

28) 『고려사』 23, 고종세가 25년 윤4월

29) 『삼국유사』 3, 탑상, 황룡사구층탑

만이 아니고 경주라는 도시 전체가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1238년 경주의 큰 피해 중에서도 유독 황룡사 탑의 소실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는 황룡사 탑의 건축적 위용만이 아니라, 이 탑이 가진 각별한 의미 때문에 고려인들에게 준 충격이 더욱 컸던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황룡사 9층탑의 의미는 외적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진호하는 것이었다. 탑의 1층은 일본, 2층은 중화, 3층은 오월, 4층은 托羅, 5층은 鷹遊, 6층 말갈, 7층 丹國, 8층 女狄, 9층은 예맥을 막는 것이라고 安弘의 『東都成立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sup>30)</sup> 몽고를 제외한 주변 세력이 모두 망라되어 있는 셈이다. 황룡사 9층탑이 갖는 이러한 의미 때문에 탑은 여러 차례 벼락에 의한 손상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구되었다. 신라 시대와 고려시대 각 3회에 걸쳐 재건된 것이다.<sup>31)</sup>

황룡사는 신라 진흥왕 35년(574)경 석가여래 본존상인 장륙존상이 만들어졌고, 진평왕 6년(584) 금당이 조성되고,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뒤인 선덕여왕 14년(645)부터 이듬해에 걸쳐 황룡사 9층탑이 조성된다. 익산 미륵사 서탑의 조성으로부터 6년 뒤의 일이다. 황룡사의 대종이 조성된 것은 그로부터 다시 1세기가 경과한 경덕왕 13년(754)의 일이다. 이는 황룡사가 삼국시대인 6세기 후반 이후 2백년에 걸쳐 계속하여 규모를 확장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수를 통하여 사세를 유지하였음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다. 고려 명종조 金克己의 시에 황룡사 탑에 대한 묘사가 있다.

층계로 된 사다리는 빙빙 돌려 허공을 나는 듯, 일만 산천과 일천 강물이 한 눈에 트이네. (중략) 星槎(성사)의 그림자는 처마 앞 비에 떨어지고 달 속 계수나무 향기는 현함 밑 바람에 나부낀다. 굽어보니 東都의 얼마나 많은 집들이 벌집 개미구멍처럼 아득히 보이네.<sup>32)</sup>

30) 위와 같음

31) 고려시대의 경우 현종 13년(1021), 문종 18년(1064), 숙종 원년(1096)의 3차에 걸친 수축이 있었다. (『삼국유사』 3, 탑상, 황룡사구층탑)

이에 의하면 황룡사 탑은 사다리를 이용하여 높이 오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때문에 탑에 오르면 “일만 산천과 일천 강물이 한 눈에” 들어온다고 하였고, 시내의 가옥들이 “별집 개미구멍처럼 아득히 보인다”는 것이었다. 흔히 우리에게 익숙한 모양만의 ‘9층’이 아니었던 것이다.

경덕왕 13년(754)에 조성된 황룡사 종은 길이 1장 3촌, 두께 9촌, 무게 497,581근으로 성덕대왕 신종보다 2배 가량이 되는 신라 최대의 거종이었다.<sup>33)</sup> 고려 숙종조(1095-1105)에 길이 6척 8촌의 新鍾을 새로 만들었다고 하였으므로<sup>34)</sup> 몽고군이 황룡사를 불태울 때 피해를 입은 것은 숙종조에 새로 만든 황룡사 종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숙종조 제작의 황룡사 신종은 무게 7.4톤(높이 2.07m, 구경 1.61m)으로 원래의 황룡사 종에 비하여 훨씬 축소되어 있다. 대형의 종 제작에 따른 기술적 문제로 부득이 신종을 다시 만들지 않으면 안되었던 듯한데, 그렇게 보면 신종은 원래의 종을 녹여 다시 만든 것이었을 것이다.<sup>35)</sup>

32) 『신증동국여지승람』 21, 경주부 고적. ‘星槎(성사)는 한나라 張騫(장건)이 서역에 사신으로 가다가 뗏목(槎)을 타고 은하수에 올라가 織女星을 만나고 왔다는 고사를 가리킨다고 한다.(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3, 1969, p.254에 의함)

33) 신라 황룡사종은 무게 41.0톤, 높이 3.14m, 구경 2.44m의 규모로 계산된 바 있다. ‘入重 12만근’의 성덕대왕신종의 실제 무게는 25톤이므로, 황룡사 종은 성덕대왕신종의 2배 가량 되는 무게이다. 이는 주종할 때 재료의 ‘畝率’ 차가 작용한 것으로, 성덕대왕 신종의 수율은 34.7%, 황룡사 종은 13.6%로 계산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병호, 「황룡사 49만근 거종은 어디로」, 『한국음악학회지』 16-6, 1997, pp.5-10 참조.

34) 『肅宗朝 重成新鍾 長六尺八寸』(『삼국유사』 3, 탑상, 황룡사종·분황사약사·봉덕사종)

35) 이병호는 숙종조 신종의 제작 시기를 숙종 8년(1103)으로 지목하고 있다. 1103년은 1101년 대각국사 의천의 입적, 1102년 해동통보의 주조가 있었던 이듬해인데, 해동통보의 주전에 황룡사종의 재료가 상당 부분 소모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에 의한 것이다.(이병호, 앞의 논문, p.10) 그러나 불교국가인 고려에서 황룡사의 종을 녹인 재료로 화폐를 만들었다는 가정은 현실성이 적어 보인다. 황룡사의 중심 건 축물인 황룡사탑은 선덕여왕대(645) 창건된 이래 성덕왕대(720) 1차 중성, 경문왕대(873) 2차 중성, 고려 현종대(1012) 3차 중성, 문종대(1064) 4차 중성에 이어 숙종 원년(1096) 5차 중성이 이루어진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삼국유사』 3, 탑상, 황룡사구층탑) 이로써 미루어보면 숙종조의 황룡사 신종의 제작도 9층탑의 정

황룡사에 대한 명종조 金克己의 다음 시는 황룡사가 몽고군의 피해를 입기 직전 단계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는 점에서 흥미 있다.

전각은 웅장하고 아름다움을 자랑하여 공중을 향하여 날아갈 듯하구나. 집 가득히 만다라 꽃은 어지러히 떨어져 옥티끌 같다. 오래 앉아 있노라니 황금 향로에서는 沈香 연기가 篆字 모양으로 줄줄이 가로 흩어진다.<sup>36)</sup>

그로부터 몇 십 년, 황룡사는 몽고군에 의하여 짓밟히고 탑과 전각, 그리고 장륙존상 등의 보물이 모두 불태워지고 말았다.<sup>37)</sup> 황룡사의 신종은 몽고군이 탈취하여 이동중 大鍾川에 빠뜨려졌다는 전설이 전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sup>38)</sup> 황룡사지의 발굴 결과에 의하면 몽고군의 피해에 대한 명확한 흔적은 잘 확인되지 않는다. 청자편 등의 수습 자료도 예상보다 빈약하다. 아마 몽고군 침입 이전에 이에 대비하여 전반적 疏開 과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sup>39)</sup>

1238년 몽고군에 의한 경주의 피해에 대해서는 황룡사가 소실된 사실만이 기록에 전하고 있다. 그러나 몽고군의 피해가 황룡사만이 아니라 시내 전역에 미쳤으리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경주 흥륜사가 소실된 것도 이때의 일이었다. 몽고군에 의하여 흥륜사가 소실되자 승려 定堅이 동정부유수 예부시랑 盧演의 도움을 받아 흥륜사 종을 다시 만들었다는 것이다. “갑진년에 이르러 도인 정견이 유수인 예부 노연과 함께 발원하여 불탄 재 속에서 남은 쇠조각을 수습하고 또한

---

비 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 시기는 아무래도 속종 초가 될 것이다.

36) 『신증동국여지승람』 21, 경주부 고적

37) 진흥왕 35년(574)경 완성한 장륙존상은 구리 35,007근, 황금 10,198分을 들여 만든 석가여래 본존상이며, 2구의 협시보살상은 철 12,000근, 황금 19,136分을 들여 만든 것이다. 2구의 협시보살도 본존과 함께 몽고군에 의하여 소실되었다. (『삼국유사』 3, 탑상, 황룡사장륙)

38) 『삼국유사』 3, 흥법, 동경 흥륜사금당 10성

39) 황룡사지 제2가옥에서는 길이 5.1cm, 莖部가 결실된 철촉 1점이 확인되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신라왕경 발굴조사보고서』 I(본문), 2002, p.124

단월에게 권장하여 얻은 쇠를 합쳐 일만 근으로 큰 종을 주성하여 명문을 쓰도록 나에게 청하였다.”<sup>40)</sup>

홍륜사는 경주시 사정동 경주공고 부지 일대에 위치했던 절로서, 이 차돈의 순교 설화로 유명하다. 진흥왕 5년(544)에 완공된 신라 최초의 절로 알려져 있는데 홍륜사 금당에는 ‘10성인’의 소상이 안치되어 있었다. 동벽에는 아도·염축·혜숙·안함·의상, 서벽에는 표훈·사파·원효·혜공·자장 등 ‘10성’을 모신 것이다. 고려 건국 직후인 921년 5월 15일 “제석이 절의 왼쪽 經樓에 내려와 열흘간 머무르니 殿塔과 초목, 토석이 모두 이상한 향기를 풍겼고, 5색 구름이 절을 덮었으며, 남쪽 연못의 어룡이 기뻐 뛰놀았다”고 한다.<sup>41)</sup> 이로써 보면 홍륜사는 경루, 탑, 연못, 벽화 등이 갖추어진 절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경주의 도시 역사에 있어서 황룡사 탑이 소실된 1238년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당시의 경주에서의 피해는 필시 황룡사만이 아니고 경주 전체에 미친 것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황룡사에 근접한 분황사에도 이때 피해가 직접 미쳤을 것이다.

황룡사 탑의 소실 시점에 대해서 『고려사』에서는 ‘고종 25년 윤4월’로, 『삼국유사』에서는 ‘고종 16년 무술 冬月’이라 하여,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서 기왕에 필자는 『삼국유사』의 ‘고종 16년 무술 동월’은 ‘고종 25년 무술 동월’의 오류라는 점, 그리고 당시 몽고군의 전황 상으로 보아 그 시기는 4월이 아니고, ‘冬月’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정리한 바 있다. 즉 황룡사의 소실을 1238년(고종 25)의 겨울, 즉 음력 10-12월의 일어났음을 논증한 것이다.<sup>42)</sup>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장동의 교수는, 경주 수령의 명단을 정리한 『東都歷世諸子記』에서 ‘10월 11일’(양력 11월 25일)이라는 날짜를 확인하였다.<sup>43)</sup>

40) 眞靜國師 天頊 『湖山錄』 4, 興輪寺大鐘銘并序

41) 『삼국유사』 3, 홍륜사벽화 보현

42) 윤용혁, 『고려 대몽항쟁사 연구』, 일지사, 1991, pp.75-78

43) “戊戌年十月十一日 皇龍寺乙蒙古人等亦付火燒亡”

분황사는 신라 고승 원효에 의하여 유명해진 절이고, 특히 7세기 전 반에 건축된 분황사 탑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분황사 탑은 현재 3층만 남아 있지만, 원래의 모습에 대해서는 5층, 7층, 9층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 어느 때인지 이 탑이 크게 파손되었다는 것이다. 분황사 탑의 파손에 대해서는 임진왜란 때의 일이라는 기록이 있다. 『동경잡기』에 “분황사 탑은 9층으로 신라 3보의 하나인데 임진왜란 때 그 반이 훼손되고, 이후에 어리석은 중이 수리하려다 다시 훼손하였다”<sup>44)</sup>는 것이 그것이다. 이에 의하면, 1차 훼손이 임진왜란 때의 일이고, 다음에는 사승에 의하여 2차 훼손이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최재암의 시에서는 분황사 탑이 반쯤 훼손되었다 하였고<sup>45)</sup>, 魚世謙(1430-1500)의 시에서도 “탑의 앞 뒤가 이미 훼손되어 있다”(古塔已湮前後面)고 하였다.<sup>46)</sup> 15세기 『동국여지승람』에서 분황사는 이미 ‘분황폐사’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인용되어 있는 서거정의 시에는 “분황사는 황룡사와 마주하여 천년 옛터에 풀만 스스로 새롭구나. 흰탑(白塔)은 우뚝하여 손을 부르는 듯”이라 묘사되어 있다.<sup>47)</sup>

그런데 어세겸의 시는 임란 훨씬 전인 15세기의 것이어서,<sup>48)</sup> 분황사 탑의 파손이 임진왜란 이전의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 이전이라고 한다면 13세기 몽고군의 침입, 아니면 14세기 왜구로 인한 피해일 것이다. 1238년(고종 25) 윤4월, 황룡사와 9층탑이 소실될 때 경주는 큰 피해를 입었다. 몽고군에 의하여 황룡사가 불타고 흥륜사가 피해를 입었다면, 황룡사 바로 옆의 분황사가 함께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극히 높다.

분황사지의 발굴조사 결과에 의하면 선덕여왕 3년(634) 창건 이후

44) 『동경잡기』 2, 고적

45) “芬皇寺 野寺門常閉 慌庭塔半毀 獨餘金丈佛 默數千年史”(「東都懷古十四詠」)

46) 『신증동국여지승람』 21, 경주부 제영

47) 위와 같음

48) 박경식 「분황사 모전석탑에 대한 고찰」 『신라문화재 학술발표회 논문집』 20-1, 1999

8세기 중엽 1차 중건이 이루어지고, 고려후기에서 조선 초 사이에 2차 중건이 이루어지는데 2차 중건의 금당 면적은 1차의 것에 비하여 22% 수준으로 축소된 것이었다. 1차 중건가람이 13세기에 쇠락한 요인을 보고서에서는 몽고군에 의한 피해로 규정하고 있다.<sup>49)</sup> 임란 이전 분황사 탐의 훼손 사실은 결국 1238년 몽고군의 침입에 의한 분황사의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이다. 몽고군에 의하여 황룡사탑은 불태워지고 돌로 지어진 분황사 탐도 파손되었던 것이다.<sup>50)</sup>

## 5. 울산 연자도 입보 사례

2010년에 조사된 울산시 해변의 작은 도서, 燕子島 유적(울주군 온산읍 당월리)은 몽골 전란기의 입보 유적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흥미 있는 자료이다. 연자도가 위치한 온산읍은 울산의 남동쪽에 해당하며, 1974년 이후 일대가 온산국가공단이 건설되면서 해안선 대부분은 원래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공단의 해안선에 인접하여 위치한 연자도는 해안선 길이가 1km 미만의 작은 무인도로서<sup>51)</sup>, 거주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매우 협소한 면적의 섬이다.

49) “황룡사와의 이격 거리가 200m도 되지 않을 정도로 자근에 위치한 분황사의 경우, 이처럼 엄청난 병화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고 무사히 피해갔을 개연성은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분황사 발굴조사보고서』 Ⅱ-3, 2015, p.1825) 조사에서는 4.8cm 길이 청동제 화살촉 1점이 확인되었다. (위 보고서, p.1534, p.1537)

50) 경주는 현종 3년 동여진에 대비한 성곽 시축을 계기로 월성 舊邑基로부터 서북쪽의 新邑基로 도심이 이동하게 되는데, 대략 그 시점은 ‘고려 중기’라고 한다. (정은정, 「고려 중기 경주의 읍기 이전과 경관」, 『사학연구』 106, 2012) 신읍기로의 이동에는 몽고군의 침입도 일정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1) 매립 이전 해안선 길이는 844m, 조사 당시는 600m였다고 한다.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울주 연자도 유적 -울주 당월리 연자도 온산국가산업단지내 공장부지 발굴조사보고서』, 2012, p.2 참조.

공단 조성을 위해서 행해진 연자도에 대한 조사에서는<sup>52)</sup> 고려시대 건물지 21동, 수혈식 주거지 6동, 수혈 유구 278기가 섬에 집중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 가운데 건물 일부는 기단부를 갖추고 기와를 사용한 것이었으며, 다량의 수혈 유구가 동반된 유적이라는 점에서 특수한 용도의 공간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출토 유물은 청자 414점, 도기 159점, 기와 147점, 금속유물 24점, 석기류 6점 등이다. 그 가운데 금동불상과 철솥, 철추, 도가니 등도 보고되었다. 4호 건물지에서 출토한 금동불은 약 20cm 높이에, 우견편단으로 옷주름이 전체적으로 강조되고, 시무외 여원인으로 보이는 수인을 한 여래입상이다. 전체적으로 부식이 많이 진행되고 좌측의 손과 두 발 이하에 손상이 많지만 균형이 잡힌 세련된 작품이다.<sup>53)</sup> 제작 시기는 통일신라기, 8세기 작품으로 추정된다.<sup>54)</sup> 고급의 청자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귀하게 모시고 있던 불상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연자도 4호 건물지는 조사된 유적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튼튼하게 구성된 대석을 갖춘 가장 큰 규모의 건물에 속한다. 구들이나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기와를 덮은 건물이었다는 점도 유적에서 4호 건물지가 중심에 해당하는 것임을 암시한다. 대신 4호 건물지의 동편에 부속된 1칸 규모의 4-1호 건물지는 전면에 구들이 시설되어 있어 4호 건물지를 집무실, 그리고 4-1호는 이에 부속된 숙박 공간으로 파악되었다.<sup>55)</sup> 4호 건물지의 길이는 13.2×5.5m, 유물은 철추, 철솥, 벼루 등이 함께 출토하였다.<sup>56)</sup> 이러한 유적의 현황에 근거할 때, 이 유적은 적어도 공적 기능을 수반한 집단의 거주 공간

52)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실시한 발굴조사는 2010년 9월부터 12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53)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울주 연자도 유적 -울주 당월리 연자도 온산국가산업단지내 공장부지 발굴조사보고서』, 2012, p.40

54) 발굴보고서에는 불상의 연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 '8세기' 통일신라기의 불상이라는 것은 동아대학교 정은우 교수의 견해에 의거한 것이다.

55)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앞의 보고서, p.260

56) 위의 보고서, pp.23-25

이었음을 알 수 있다.

278기라는 다량의 수혈 유구의 존재도 유적의 성격과 관련하여 주목을 끄는 사항이다. 유구의 성격에 대해서는 의례 수혈, 토취장, 공방지, 용도 미상 등으로 구분되었다.

출토된 청자에 대해서는 ‘12세기 중엽에서 13세기 말엽’으로 편년되었는데, 이들 출토 자료의 여러 측면을 고려하면 연자도 유적의 연대는 일단 13세기이다.<sup>57)</sup> 건물지에 대한 考古地磁氣 측정 결과에서도 대략 ‘13세기 중후반’이라는, 이에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sup>58)</sup> ‘13세기 중후반’이라면, 구체적으로는 몽고군의 고려침입이 전개된 시기(1231-1259)에 해당하는 것이다.

유적의 성격에 대하여 보고서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첫째는 “울산지역의 호족들이 몽고 침입에 대비하여 조성한 해도입보 유적”의 가능성, 그리고 둘째는 “울산지역과 경상도 일대를 근거로 한 해상무역의 거점 지역”의 가능성이 그것이다.<sup>59)</sup> 이는 2012년도 세미나 발표에서 “해상 활동과 관련한 세력집단”의 유적이라 했던 것에서 보다 유연한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sup>60)</sup> ‘해상무역의 거점’일 가능성은 “견고한 창고로 추정되는 건물지 시설과 위세품 성격이 강한 수입자가, 양질 청자의 다량 출토”가 그 근거이다.<sup>61)</sup> ‘해상무역의 거점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무역 행위의 축적이

57) 위의 보고서, p.268

58) 건물지에 대한 考古地磁氣 측정 결과는 3호 건물지 1180-1300년, 7호 건물지 1150-1270년, 11호 건물지 1200-1250년 등으로 측정되었다. 성형미 「울주 연자도 유적에 대한 고고지자기학적 연구」 동양대 발굴문화재발굴보존학과, 2011

59)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울주 연자도 유적 -울주 당월리 연자도 온산국가산업단지내 공장부지 발굴조사보고서』, 2012, p.269

60) 유적의 성격에 대하여 처음 발굴담당자는 “해상 활동과 관련한 세력집단”의 유적으로 추정하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김성식 「연자도 유적을 통해서 본 고려 중·후기 울산지역 취락의 이해」 『유적과 유물로 보는 고려시대 경상도 지역문화』 (한국중세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12, pp.42-43)

61)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울주 연자도 유적 -울주 당월리 연자도 온산국가산업단지내 공장부지 발굴조사보고서』, 2012, p.269

필요하고, 활동을 뒷받침할 일정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자도 유적은 비교적 단기간의 일회성 유적이라는 특징이 있고, 무역의 거점이 되기에는 너무 작은 규모의 섬이어서 성격이 그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해상무역의 거점’을 상정할 경우 이와 연결되는 대상 지역이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연결 관계가 얼른 떠오르지 않는다. 섬의 면적이 매우 협소하다는 것 역시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금동불을 포함하여 다량의 고급 청자는 이 유물의 집단이 귀족 혹은 이에 준하는 고급의 지위에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 시기 이동하는 지배 집단으로서 삼별초를 들 수 있다. 연자도의 유물도 대략 진도, 제주도 등의 삼별초 유물과 상통하는 점이 있다.

울산 연자도 유적이 흥미를 끄는 것은 사용 시기가 중첩되지 않은 특정 시기에 사용이 제한된 일회성 유적으로 보인다는 점, 작은 규모의 섬이라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최상급의 고급 유물이 포함되어 있는 점, 미사용 유물 유적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 점은 이 유적이 일정 시기, 특수한 여건에 의하여 육지로부터의 다양한 출신의 인적 집단이 일거에 이주해 왔던 생활 유적이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나는 이 유적이 몽골 전란기 울산 인근지역으로 부터의 집단 이주, 즉 해도 입보가 이루어진 유적이라고 생각한다.<sup>62)</sup> 그 시기는 몽골군의 경상도 지역에 대한 침략이 특히 격화되었던 6차 침략의 전반기, 1254~1256년을 중심 기간으로 하는 유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경상도에서 몽고군의 피해가 극심했던 것은 특히 1254년(고종 41) 때였다. 이때 몽골의 차라대군은 연말에 이르기까지 상주, 대구, 진주 등 경상도 지역을 광범하게 휩쓸고 갔다. 정부에서 파견된 송길유가

62) 유적의 성격에 대하여 발굴담당자는 “해상 활동과 관련한 세력집단”의 유적으로 추정하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김성식 「연자도 유적을 통해서 본 고려 중·후기 울산지역 취락의 이해」, 『유적과 유물로 보는 고려시대 경상도 지역문화』 (한국중세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12. pp.42~43)

‘경상도수로방호별감’으로 해도 입보를 적극 추진한 것도 이때의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야별초 지유 출신인 송길유는 이때 “야별초를 이끌고 각 주현을 순회하면서” 입보를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연자도 유적의 중심 시기를 몽고군의 6차 침입기인 1254년(고종 41)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연자도 입보집단이 어디로부터 이주해 온 것일까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 연자도가 소재한 울산 일대의 군현이 곱히게 된다. 따라서 김성식은 보고서에서 연자도의 유적과 거주 집단에 대해 ‘울산 지역의 고려시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sup>63)</sup> 그러나 청자를 비롯하여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생활용품은 중앙의 귀족과 유력 사원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sup>64)</sup> 중앙과 연결되어 있는 유력한 지배집단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경상도의 동남지역은 해안에 인접한 도서가 거의 전무하다. 가까운 지역으로의 해도 입보가 가능하지 않은 지역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연자도에서 사용되었던 청자 등 관련 자료는 이들이 중앙 지배층에 비견되는 집단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아마도 울산, 혹은 인근의 작은 군현으로부터의 이주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연자도의 사람들은 인근 지역에서 가장 큰 거점 도시이며 중앙과의 연결성이 강한 동경, 즉 경주로부터 이주한 입보민의 일부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통일신라 8세기대로 추정하는 세련된 금동불의 존재도 이들 집단이 경주(동경)로부터 입보한 집단이었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된다.<sup>65)</sup>

63)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앞의 보고서, p.269

64) 연자도 유적 출토 청자는 해음원지, 강화도 석릉 및 곤릉 출토품, 강진 사당리 13호 출토품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울주 연자도 유적 - 울주 당월리 연자도 온산국가산업단지내 공장부지 발굴조사보고서』, 2012, p.268

65) 경주 황룡사지(6가옥)에서도 비슷한 느낌의 통일신라기 금동여래입상이 발굴된 바 있다. 높이 11.5cm, 옷은 통견으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편년은 ‘8세기 후반’

고려 말 河崙의 글에 경주 동남 32리 지점의 惠利院 신축에 대한 글이 있다. 1390년 울주를 가는데, 경주의 城南쪽 천왕사에서 유숙하고 “90여 리를 가서 울주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울주는 외로운 성이 바다에서 채 10리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전함이 포구에 나누어 대고 있어서 불의의 환난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 수졸들은 대개 두 달에 한번 교대하며 생선과 소금 따위를 매매하는 자들이 때때로 온다. 그 90리의 길을 왕래하는 사이에 추위와 더위와 비오는 때와, 혹은 저문 날을 당하였을 때에 머물러 설 곳이 없었다.<sup>66)</sup>

경주와 울산이 일정하게 연결되고 있는 것과, 울산은 海防의 거점으로서 경주와는 掎角之勢의 관문이었음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경주의 지배 집단이 몽고 전란을 피하여 울산 해변으로 입보한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였으리라는 점도 암시 받는 바가 있다.

## 6. 맺는말

13세기 몽고군의 침입은 고려 전토에 극심한 피해를 입혔다. 이에 의하여 그동안 전란의 직접적 피해를 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경상도 지역도 몽고군의 구락을 피할 수 없었다. 특히 몽고군은 고려 전토 구락의 큰 동선을 경상도 방면에 설정하고 침입하였다. 그 이유는 고려의 도시 축이 서북축과 동남축이 대각선으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일본을 염두에 두더라도 경상도 방면이 전략적으로 유효한 점이 있었다. 그리하여 1232년 팔공산 부인사의 대장경 판목이 소실되었고, 1238년에는

으로 추정되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신라왕경 발굴조사보고서』 I(본문), 2002, p.214, p.605

66) 『신증동국여지승람』 21, 경주부 역원

황룡사가 9층탑과 함께 불탔다. 1238년에는 황룡사만이 아니고 흥륜사, 분황사도 큰 피해를 입고 있어서 당시의 피해가 경주 전역에 걸친 심각한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경상도 지역에서는 상주 상주산성, 대구 공산성 등 산성이 중요한 입보처였다. 경주에서는 아마 부산성이 중요하게 이용되고 진주에서는 남해도에의 입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는 낙동강의 주운을 이용하여 전란을 피하기도 하였다. 강도정부는 입보책의 추진을 위하여 강압적 방법을 불사하였고 이 때문에 주민들과의 갈등도 적지 않았다. 기록은 극히 제한적이지만 경상도에서도 몽고군의 침입에 대응하여 산성 혹은 해도로의 입보가 초기부터 광범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본 연구는 추정하였다. 다만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해도 입보에 비하여 산성으로의 입보가 보다 일반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울산 연안 연자도에서 13세기 집단 거주 흔적이 발굴에 의하여 확인되었는데, 필자는 이 유적이 바로 당시 관에 의하여 추진된 해도 입보의 유적일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 시기는 경상도 일대에 대한 몽고군 침입이 심각했던 1254년(고종 41)부터 1256년(고종 43)이며, 연자도의 이주 집단은 관에 의하여 주도된 경주로부터의 이주였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특히 질 높은 고급 청자의 사용, 신라 금동불의 존재, 과학적으로 분석된 유적의 연대가 이점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자도 유적이 13세기 몽고 전란기의 해도 입보의 사례라고 할 때, 이 유적은 전란기의 지역민들의 삶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 평가된다.

[원고투고일: 2016.8.31, 심사수정일: 2016.9.6, 게재확정일: 2016.9.6.]

주제어 : 몽고 침입, 경상도, 황룡사탑의 소실, 분황사탑의 파손, 해도 입보, 연자도 유적

(부) 경상도 지역의 여몽전쟁 관련 연표(1231-1259)

- 1231. 8 몽고의 1차 침입
- 1232. 7 고려, 강화도로 서울을 옮김
- 1232. 8 몽고군의 2차 침입, 이해 대구 부인사 소장 대장경판이 몽고군에 의하여 소실됨
- 1235. 9 야별초 도령 이유정이 해평(구미)에서 몽골군을 치다 패물함 몽골군이 동경(경주)에까지 침입, 상장군 김이생을 동남도지휘사, 충청주도 안찰사 유석을 부사로 경상도에 파견함  
이 해 동남도 지휘사 김이생과 부사 유석이 통도사를 예방함
- 1236. 9 대장도감 설치, 팔만대장경 조판 시작
- 1238 가을, 몽고군이 경상도 침입함
- 1238. 10 몽병, 경주에 이르러 황룡사와 9층탑을 불태움  
홍륜사, 분황사 등도 비슷한 시기에 피해를 입음  
여러 도에 산성방호별감 37인을 파견함
- 1244. 9 몽고병란으로 소실된 홍륜사 종을 다시 주조함
- 1247 몽고군이 경상도에 침입함. 慶尙晉安東道 안찰부사 金光率가 경주에서 瑞龍禪老 連公 등 선승들을 불러 모아 법회를 주관함
- 1252. 7 여러 도의 산성에 방호별감 파견
- 1254.10 차라대가 상주산성(백화산성)을 공격하였으나, 성 안의 황령사 승 홍지 등이 격퇴함  
상주의 아전 金祚가 백화산성으로 피란함
- 12 최린의 합주의 단계(산청군)에서 차라대를 만나고 돌아옴  
진주인 康守衡이 몽고군에 포로로 잡혀감  
이 해에 죽은 자는 셀 수 없고 몽고군에 포로된 자는 20여 만에 이른다 함. 경주로부터의 연자도 입보가 이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
- 1255. 1 몽고군에 포로로 잡힌 대구민이 도망하여 몽고군 철수증임을 알림  
3 대구 공산성에 입보한 사람들이 거주지로 귀환하였는데, 굶어죽는 자가 매우 많았음
- 1256. 4 현풍현민의 선박 40척이 부근 낙동강에 정박하던 중 몽고군의 공격을 받음. 이때 권농사 김종서가 사살됨.
- 1259. 3 고려의 입조 약속에 의하여 몽고군, 고려에서 철수함

<ABSTRACT>

## Gyeongsang-do During Mongol Invasion of Korea

– Destruction of Hwangryongsa Temple in Gyeongju and  
Entry into Yeonjado Island in Ulsan –

Yoon, Yong-hyuk

Mongol invasion in the thirteenth century brought severe damage to Gyeongsang-do region which had yet to directly experience the horror of war. In 1232, the wooden printing blocks of Buddhist scripture collection held at Buinsa Temple in Daegu were destroyed. In 1238, Hwangryongsa Temple in Gyeongju, with its nine-story tower, burnt down. The destructive hands of the Mongol army did not stop at Hwangryongsa Temple, destroying Heungryunsa Temple and Bunhwangsa Temple; the entire region of Gyeongju fell victim to the invading forces.

While surviving records are extremely limited, this paper estimates that, in response to the Mongol invasion, entry into castles or islands was widespread across Gyeongsang-do from the early days of the invasion till the very end. In Gyeongsang-do, Sangjusanseong Castle in Sangju and Gongsanseong Castle in Daegu were key fortresses. In Gyeongju, Busanseong Castle was of importance whereas those in Jinju moved to Namhaedo Island.

In 2010, thirteenth-century remains of group living were discovered in Yeonjado Island off the coast of Ulsan. The author took this to be the remains of island entrance led by the government at the time of the invasion. The remains are dated to a period between 1254 to 1256, when the Mongol invasion into Gyeongsang-do region was in full stride; the author estimates that the group which moved into Yeonjado Island came from Gyeongju.

Key words : Mongol invasion, Gyeongsang-do, destruction of Hwangryongsa Tower, damage to Bunhwangsa Tower, Entry into Islands (refuge to island), Yeonjado remains